공동체 소식

▣ 성모성월 안내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5월을 성모성월로 지내면서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고 마리아의 모범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풍요로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지난 1965년에 발표한 '성모성월에 관한 교서'에서 "교회 공동체와 개인, 가정 공동체는 성모성월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마리아에게 드리고, 기도와 찬미를 통해 마리아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모성월을 제정한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 성모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평생을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늘나라에 불려 올라간 성모님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뵙기를 염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님의 삶을 두고 "하느님과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주는 표지요 도구"(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헌장 1항)인 교회의 전형(典型)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 본당 야외미사 안내(성소주일)

일시 : 5월 12일(일) 11시 미사 시작

장소 :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10

준비 : 개인 미사도구, 걷기 편한 신발과 복장 준비

간단한 Mother's Day 행사와 점심 식 후 Shelter #8으로 이동 하여 Hiking Trail 걷습니다.

주일학교 교리와 예비신자 교리 없습니다.

사제성소와 수도성소를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 평협회 안내

15일(수) 저녁미사 후 나자렛관

▣ 구역모임 안내

17일(금) 오후 7시30분 **3구역** 안병환 발렌티노 가정
주소: 2624 W 145th st, OP, KS

18일(토) 오후 7시 **2구역** 김창식 베네딕도 가정
주소: 12912 Mastin dr, OP, KS

18일(토) 오후 7시 **4구역** 강승호 아오스딩 가정
주소: 6258 W 157th st OP, KS

▣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아,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이우석 프란치스코, 천주영 에스델 (27가정)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55	212	174	244
차 주	34	513	170	134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로마노)	감영진(라파엘) 한춘희(라파엘라)
차 주	김대연(요셉)	박태주(로마노) 김명희(리드비나)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김정원(안젤라), 김정빈(바오로)	
차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정예진(한나) 김지안(요한)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태중(예레미아), 강승호(아오스딩)
차 주	감영진(라파엘), 조진환(베드로)

▣ 애찬 봉사자

금 주	행사: 야외미사
차 주	4조: 김화년, 안현숙, 송진희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매 미사 후 뒷정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성소 주일입니다. 기쁨과 평화의 샘이신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앞날을 성자의 권능에 맡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이 세상 일을 하면서도 생명의 샘으로 이끄시는 좋은 목자를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청합시다.

그림 묵상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요한 10,27-29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3,14.43-52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화 답 송 :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 2 독 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7,9.14ㄴ-17
<어린양이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7-30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생명의 말씀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한 10,27)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특성을 지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갖는 큰 특성은 '듣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요한 5,24)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자연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믿을만한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따르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당 행동하고,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빛 속을 걷고 믿는 이들은, 고통을 겪을 일들이 있겠지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통교를 이루면서 확실한 승리를 예감합니다.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서로 깊이 하나 되시고 통교하고 계심을 알기에(요한 10,30 참조) 믿는 이들은 구원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만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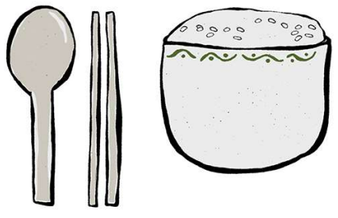
오직 예수님의 양 떼에 속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르면서' 그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메시아이시며 착한 목자이심을 알아차립니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양 떼에 속하지 않는 자들과는 달리,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느끼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알아듣고 따르는' 이 모든 여정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 생명을 내놓기까지 헌신하시는 '올바른 목자, 참된 목자'이심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대로 된 목자'이자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목자'이시기에 양 떼들을 목초가 풍성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양 떼와 단순히 이성적합리적 이해를 넘어, 서로 매우 가깝고 긴밀한 친한 사이가 되어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소통을 잘하며, 마음과 생각이 통하여 일치를 이루고 참사랑으로 연대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전보다 더 깊게, 또 상당히 광범위하게 스며든 세속화 현상 때문에 매우 고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맡겨진 직무가 소명과 사명이라는 자각을 더욱 깊이 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 닮아, '착한 목자', '제대로 합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역량 있는 멋진 목자'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제대로 된 목자'가 될 신학생들이 많이 생기도록, 교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주시고, 가능한 모든 도움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식사 전에 늘 수저를 왼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소한데, 그게 참 편하고 좋은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위로되는 날이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한 10,27)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신앙생활의 2막

하느님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던 저는 신앙의 첫발을 내딛고 한동안 하느님과 함께 잘 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쉽게 싫증을 내는 성격 탓인지, 아니면 일주일 내내 스케이트장에 있어야 했던 탓인지, 저의 삶에서 하느님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9살 국가대표가 되어 태극마크를 달고, 집을 떠나 선수촌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혼자 지내는 시간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아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선수 생활은 큰 무리 없이 잘 지나갔고 20살 초반에 세계대회에서 여러 차례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내가 이루어낸 거야.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해낸 것이니 앞으로도 혼자서 잘 해내면 될 거야'라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시합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은 조금씩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2~2013 시즌에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월드컵 시리즈에서 좋은 성적을 내던 중,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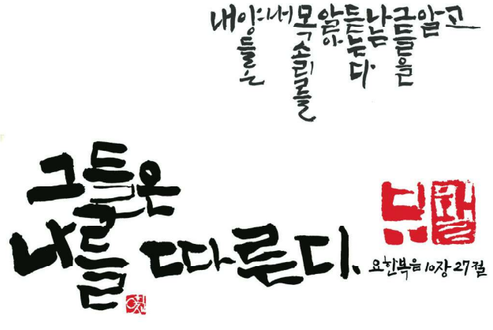
4년 동안 준비해 온 올림픽을 나가지 못하게 된 것도 마음 아프고 힘들었지만, 부상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이라 생각했던 저에게 발목 부상은 '선수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만큼 크고 심각했습니다. '왜 나는 내가 다치고 나서야 그동안 동료 선수가 부상으로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함께해주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는 걸까?' 재활을 위한 훈련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졌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만큼 부상은 더욱 더디게 회복되는 듯했고, 완벽하지 못한 몸으로 나선 경기는 매번 성적이 좋지 않아 '선수를 그만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선수촌 성당을 향하는 동료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느님이 받아주실까?'

어색하게 들어선 성당에서 마주한 신부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평소에 힘든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더 힘들어할 가족의 모습이 떠올라 그냥 잘 지낸다고 말하곤 했지만, 그날은 누군가에게 꼭 힘들다고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고해성사를 마치고 신부님은 '그동안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지금이라도 돌아온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 마음이면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재활 훈련은 힘들었고, 원하고 계획했던 만큼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한 번은 찾아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이 생겼고, 힘들 때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궁금했던 하느님이 이제야 다시 궁금해졌고 매번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곽윤기 스테파노 | 쇼트트랙선수

복음묵상



캘리그라피
원회진 레아